

'말이 아닌 발걸음'으로 효의 의미를 전하다

—30년 시부모 봉양에 20년 친정 부모 모시기 그리고 18년 조카 양육까지, 장춘 박금자교원의 삶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매년 관광을 다니는 박금자와 남편

백가지 선행중 효도가 첫째라 했다. 장춘시에 사는 박금자(53세)는 중학교 교단을 지키는 평범한 교원이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범하다'는 말이 얼마나 부족한지 금방 알게 된다. 시부모 봉양 30년, 친정 부모 모시기 20년, 갓난 조카 양육 18년... 이 수자를 하나하나가 남다른 헌신의 발자취를 뚜렷이 보여준다.

로 모셔왔다. 생활비는 물론 의식주와 병원비까지 부부가 전부 책임졌다. 해마다 시간을 따로 내어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일도 거르지 않았다. 산천경계를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담소 한마디가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그런 딸의 곁에서 진정한 로년의 행복을 누렸다.

자 박금자 부부는 망설임없이 로인을 장춘으로 모셔와 치료를 도왔다. 로인이 연길로 옮겨간 뒤에도 두 도시를 수차례 오가며 병간호를 이어갔고 로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후사까지 정성껏 치렀다.

아들에게 물려준 효, 헌신이 헛되지 않은 순간

박금자는 아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아들이 외지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어느 날 영상통화중 할아버지가 "손자야, 보고 싶구나."라는 한마디에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며칠 뒤 먼길을 달려와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다.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며 박금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며 큰 보람을 느꼈다.

길림성의료자원봉사자협회 비서장, 장춘시남관구사회사업및자원봉사연합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는 박금자는 가정에서 쌓아온 따뜻한 마음을 사회로도 넓혀가고 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랑심껏 했을 뿐입니다."

평범해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을 씀을 넘긴 오늘에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박금자씨이다. 효도와 헌신,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그의 삶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는 소중한 가치들을 조용히 일깨워준다.

/ 김민기자



30년 며느리의 자리... '효도란 발걸음'

결혼과 함께 시부모와 한지붕 아래 살림을 꾸린 박금자는 수십년째 로인들의 일상을 곁에서 살뜰히 챙겨왔다. 밥 한끼 차릴 때도 건강을 먼저 헤아렸고 계절이 바뀌면 옷 한벌 챙기는 일도 그의 몫이었다.

2010년 시어머니가 뇌출혈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박금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홀로 남은 시아버지 곁을 더욱 가까이 지켰고 로인의 폐암 진단을 받아 병원 동행과 밤샘간호를 도맡았다. 2024년 시아버지가 88세로 편안히 눈을 감기까지 그의 손길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다. '효도란 말이 아니라 발걸음'이라는 진리를 박금자는 30년의 삶으로 묵묵히 증명했다.

농촌 부모님을 도시로... "손 하나 까딱 안하셔도 됩니다"

2007년, 박금자는 농촌에서 평생 고생만 해온 친정 부모님을 장춘으

조카를 내 아이처럼... '책임이 곧 사랑'

남동생 부부가 한국으로 일을 떠나면서 4개월 된 조카가 박금자 품에 맡겨졌다. 포대기에 싸인 아기가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18년, 박금자는 그 아이의 교육과 건강, 성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졌다.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을 분명히 세웠고 아이가 반발해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나친 사랑이 아닌 바른 사랑으로 아이의 손을 잡아 이끈 덕분에 아이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22년째 설날그믐날 밥상 준비... 대가족의 구심점

2005년부터 시작된 설날그믐날 가족 모임은 올해로 꼬박 22년째이다. 가장 많을 때는 스물여덟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커다란 밥상을 차리는 수고도, 어른들을 챙기며 분주히 오가는 번거로움도 박금자에게는 기쁨이었다. 남편의 삼촌이 연길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홀로 남겨지

연길시 여성전문초빙회 개최



초빙회 현장에 설치된 '어머니 일터' 전시구역

최근 연길시취업봉사국과 연길시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여성들에게 일터를, 그녀를 기다리는 직장' 연길시 제 15회 여성전문초빙회와 연길시인력자원시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초빙회는 2026년 '춘풍행동' 사업 포치를 깊이있게 시달하고 여성취업창업 촉진 행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여성 구직자와 고용단위간 연결 플랫폼을 정밀하게 구축하여 광

범한 여성들의 취업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다.

이번 전문초빙회는 71개 우수한 기업을 엄선하여 부당한 연령, 학력과 직업 가능 수준에 따라 교육 양성, 가정 봉사, 전자상거래 운영, 수공업 등 분야의 210개 일터를 제공했다.

취업 봉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초빙회는 특별히 '어머니 일터' 전시구역을 설치해 직업 가능 전시,

실무 체험, 취업 추천의 심층적 응합을 실현했다. '어머니 일터' 전시구역에서는 전문 강사들이 수공예 제작, 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다양한 직업기능을 선보여 수많은 여성 구직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현장에는 정책 상담 봉사구역이 마련되며 세무, 의료보험, 사법 등 여러 부서가 함께 구직자들에게 취업 지원, 직업 기능 양성, 로동 권익 수호 등 여러 면으로 '원스톱' 안내 봉사를 제공했다.

연길시취업봉사국 집계 수지에 따르면 당일 현장에서 273명이 초보적인 취업 의향을 달성했다.

연길시취업봉사국 관련 책임자는 "앞으로도 여성, 대학졸업생, 취업곤난인원 등 중점 군체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최적화하고 취업 경로를 다양화하며 직업 기능 양성을 강화하는 등 구직자들의 취업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글리전기자

/ 사진 연길시부녀연합회



'진달래' 여성생태경무팀

봄날의 푸르른 화폭 그려내

청명절을 앞두고 왕청림구에 성묘를 가는 대중이 날로 늘고 있다. 산비탈에서는 젊은 여성 경찰들이 군중들의 손에서 향지(香紙)를 건네받으며 말한다. "할아버지, 제물은 제가 도와서 올려가겠습니다. 향지는 태우시면 안됩니다. 산바람이 강해 큰불이 나기 쉬워요. 후손들에 푸른 산을 남겨주세요 아지요!"

이 아름다운 광경은 길림성공안청삼림공안국 왕청삼림공안분국 '진달래' 여성생태경무팀(“金达莱”女子生态警务队)의 일상적인 모습이다.

봄이 깃든 왕청림구는 눈과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새싹이 막 움트기 시작하면서 야생동물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이자 산불 예방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 일대는 동북호랑이표범국가공원 핵심지역, 고목명목 보호구역, 철새 이동지역을 아우르는 곳으로 동북 온대삼림계통의 '자연박물관'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대중은 여전히 '산에 의지하여 산다'는 오래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태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왕청삼림공안분국은 올해 3월 지역 특성과 민족 실정을 고려해 '진달래'여성생태경무팀을 구성했다. 이 여성 경찰들은 평균연령이 31세로 '녀성도 남성보다 못하지 않다'

는 강인함으로 녀성 특유의 친화력을 '생태경찰업무'에 접목시켜 산속에서는 원칙을, 접촉에서는 온정을 더하고 있다.

생세안 팀장은 "법을 조항으로 생태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로 관련 법규를 알리며 실질적인 성과로 민심을 따뚝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모두 함께 생태환경을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3월 25일 이른아침, 녀성 경찰들은 제복을 차려입고 홍보 자료와 검사 도구를 챙겨 현장에 나섰다. 림장에서 그들은 여러 가정을 방문해 산불 예방 지식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산에서는 절대 함부로 불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림사로 마련된 홍보소에서는 전 단지를 나눠주며 산불 예방 '10가지 금기 사항'을 알리고 군중들에게 방화기구 사용법을 손수 가르쳤으며 지나가는 차량들이 인화성 물품을 적재했는지 세심하게 점검했다.

초봄의 산길은 험준하고 채 녹지 않은 잔설에 찬기운이 감돌았지만 녀성 경찰들은 의기충천했다. 그들은 산길 입구부터 순찰을 시작하면서 마른 나무가지와 락엽 같은 가연성 물건들을 정리하고 무단 입산과

야외 방화 행위를 면밀히 점검했다.

"나이는 젊지만 배우고 일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여가 시간을 쪼개가며 생태 관련 지식을 익힙니다. 업무 적응이 아주 빠릅니다." 하세안 팀장의 칭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한 지정 삼림보호방화검사소에서 녀성 경찰들은 삼림감시원인 리로인과 근황을 나누었다. "자주 순찰해준 덕분에 식물을 불법 채취하거나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는 일이 많이 줄었어요. 요즘은 산에서 노루도 자주 볼 수 있을 정도로 생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리로인의 감회는 그들에 대한 가장 큰 격려였다.

하루종일 분방히 뛰어다니던 녀성 경찰들은 목소리가 쉬었지만 여전히 인내심을 갖고 모든 질문에 대답했다. 그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군중에게는 부드럽게 타이르고 요행을 바라는 방문객들에게는 리치로 설명했다.

진달래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화(州花)로서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상징한다. 생태보호전선의 녀전사들인 그들은 푸르름을 지키는 길에서 청춘의 땀방울을 휘뿌리며 진달래꽃처럼 활짝 피어나고 있다.

/ 길림일보



연길공항공분회사 녀성 종업원 월간 활동 개최

3월 25일, 연길시조양천국제공항(이하 '연길공항') 분회사에서는 각 부문의 20명 녀성 종업원 대표를 선출해 주공공회 종업원문화중심에서 녀성 종업원 월간 활동을 개최했다.

녀성 종업원들의 심신건강을 돌보고 그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며 수공예 제작으로 스트레스를 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활동은 '교묘하게 손으로 향기를 모으고 자기만을 위한 기쁨의 시간을 즐기자'를 주제로 조선족 특색 수제 비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참가자들은 집중하여 비누 베이스를 가열해 녹이고 일정한 속도로 저온 뒤 색상을 배합하여 모형 틀에 부어넣어 응고되기를 기다렸다. 비누 향과 유유 향, 정유(精油) 향이 어우러져 은은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색깔과 모양이 독특한 수제 비누가 하나하나씩



연길공항공분회사 녀성 종업원들이 수제 비누를 손수 만들고 있다.

완성되었다.

활동에 참가한 녀성 종업원들은 "수제 비누 제작 과정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를 다스리는 시간이였다. 또한 회사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였다."며

"앞으로 더욱 포만된 정서로 업무에 충실하며 녀성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연길공항의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 리전기자

